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손병현 작가 두번째 소설집

유가족·시민 증언 등 도움

“단편집과 5·18 다룬 장편 계획”



손병현 작가

# 5·18 당사자와 가족들 이야기 “창작을 하면서 ‘광주’를 만난다”

“이전의 소설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주변부 인물들의 삶을 담아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항쟁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1999) 손병현(50)이 두 번째 소설집 ‘술 만한 놈이 나타났다’(문학들)를 펴냈다. 몇 년 전 펴낸 장편 ‘동문다리 브라더스’에서 확보되지 못한 5·18 당시의 현장성을 살리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거나 보이지 않는 숨과 어깨로부터 한 줄 한 줄 뽑아져 나왔다. 5·18 당시의 현장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척박한 역사가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창작집에서도 ‘고발’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이야기를 일정부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40년 성장 또한 투영돼 있는 것이다.

“모든 사건의 뿌리에서 발화하는 것이 소설의 힘인 것처럼 5·18 소설의 역동성과 진정성은 현장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죠.”

모두 8편이 실린 소설집은 각기 다른 주제를 설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18을 맞닥뜨린 개인의 삶으로 수렴된다.

오랜만에 소설집 출간을 알려오는 작가의 목소리는 어제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손 작가는 30대 중반 함께 소설 공부를 했던 인연이 있다. 문예창작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소설의 창작 방향 등을 공부하며 손 작가의 창작에 대한 열망을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리고 얼마 후 손 작가는 창작의 무대를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바람을 안고 서울로 올라갔다. 당시 그는 “광주를 떠나면서 줄곧 광주가 뒤돌아보겠다”며 “솔직히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난 측면도 있었다”고 웃었다. 아마도 “그 애증이 향한 곳이 결국 5·18”이었던 모양이다.

작가는 이번 소설들을 쓰기 위해 자료와 증언을 참조했다. 기존에 발간된 서적들과 전남대 5·18연구소의 자료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증언은 유가족과 시민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솔직히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이

소설 ‘민주유해자’의 흥취는 잔인한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민주유공자’였다. 그의 동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옆집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며 여러 차례 흥기로 위협해 몇 차례 구속까지” 됐을 정도로 수없이 주변인을 괴롭힌다. 일종의 ‘민주유해자’가 돼 버린 것이다. 살아 있는 한 트라우마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 그는 사형수 심정으로 아파트 난간을 올라간다.

소설은 5·18의 40년 과정이 지난했던 것과 같이 소설 속 인물들의 삶 또한 부침을 거듭했을 거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김형중 평론가는 “민주유공자들이 민주유해자가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그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정직하고도 성찰적인 기록, 그러나 손쉬운 매도나 비난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처의 크기를 부각시키려는 사려 깊은 그런 미덕”이라고 평한다.

다른 소설 ‘배고픈 다리 밑에서 흥탁’, ‘태극기 아래서’ 등은 1인칭 화자의 자전적 고백 형식의 작품이다. 전자는 인터뷰이의 독백 형식을 취하고 있고, 후자는 실제 ‘오월 어머니’ 두 분과의 전화 인터뷰를 매개로 창작됐다. 말하는 자의 경험과 구체성이 생생하게 형상화돼 있어 독자들은 당시 정황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이처럼 손 작가 작품의 미덕은 5·18민주화운동 그 이면을 성찰하는 태도에 있다. 혹자는 ‘오월 문학’ 계보를 잇는 문학이라고 평가기도 한다.

그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기에 일 년이면 몇 차례 내려온다. 소설가는 작품을 쓰는 것으로 존재하기에 “창작을 하면서 광주를 만난다”는 것이다.

“소설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살아있는 소설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지요. 그동안 ‘사랑’을 주제로 단편 몇 편을 썼는데 올해 안에 작품을 묶을 계획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5·18을 다룬 장편에 도전할 생각이구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해 10여년 광주문학선배들을 쫓아다니며 막걸리를 얻어 마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지나고 보니 그 얻어 마신 막걸리 속 누룩이 아닌 선배들의 그 따운 품이 내 문학적 숙주가 아니었던 가 싶어요. 문득문득 그때가 그림습니다.” 한편 손 작가는 광주대 문창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창작집 ‘해 뜨는 풍경’, 장편 ‘내 곁에 유령’, ‘동문다리 브라더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전부터 근대까지 첼로 선율로...

‘첼리스트 조혜원 독주회’ 23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조혜원(사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 연주회로 관객과 만난다.

‘첼리스트 조혜원 귀국 독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으로 전문 예술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조 씨는 틀에 박힌 첼로 중저음의 무거움을 깨고, 독주악기로서 첼로의 주목할만한 음색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전부터 근대까지 폭 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레퍼토리는 보케리니 ‘첼로 소나타 6번’, 슈만 ‘5개의 민요풍 소품’, 쇼스타코비치 ‘발레곡2번’, ‘첼로 소나타’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양예넌이 협연자로 오른다.

한편, 조 씨는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체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현재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앙상블 마주엘, 광주첼로아카데미(GCA) 앙상블, 그나데(Gnade) 첼로 콰르텟, 모아(Moah) 피아노 트리



오 단원으로 활동중이며 문화예술공연기획 풍선껌 소속 공연 아티스트로도 무대에 서고 있다. 전석 초대.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아름다운 풍경 ‘나빌레라’

서양화가 김금란 개인전, 31일까지 LH 휴량 갤러리

“편안한 자연 속으로 초대합니다.”

서양화가 김금란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LH한국도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휴량 갤러리에서 열린다.

‘나빌레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인물 등 매번 다양한 소재로 작업해온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풍경을 위주로 한 작품 1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김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가 돋보인다. 화사한 꽃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그림은 생동감을 전하며 여인과 꽃을 함께 담은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또 물고기들이 한가로이 노니는 연못 풍경을 묘사한 작품과 노란 은행잎이 인상적인 산책길의 모습도 두터운 붓질로 묘사했다.

김 작가는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등에서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재주국제미술관 개



‘사랑길’

관기념 초대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사회, 수미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올해 열린 대한민국회화 대상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데이비드 호크니 아이패드 작품으로 위로와 안정을...



광주신세계안과, 6층 대기공간에 ‘Five Candles’ 등 작품 3점 전시

‘병원에서 만나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작가들을 초청, 전시회를 열고 있다. 작가들에게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정을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기

획이다. 지금까지 이기원·최순임·이선희·전원자 작가가 ‘그녀에게’ 등을 주제로 병원 곳곳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광주신세계안과가 이번에는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병원 6층 고객 대기 공간에 전시된 작품은 ‘Pictures at an Exhibition’(2018), ‘Five Candles’(2011), ‘plug(2011)’ 등 모두 세점이다.

호크니는 회화와 드로잉 뿐 아니라 사진과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시된 3작품은 아이패드와 사진 드로잉 방식으로 제작됐다. 호크니는 지난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술가의 초상’이 1019억원에 팔려 생존자가 회화 작품으로는 최고가를 기록한 거장으로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열린 전시에는 35만명이 다녀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김기영 감독 ‘하녀’

광주독립영화관, ‘한국영화클래식’ 시리즈 26일 첫 상영

광주독립영화관은 한국영화사의 걸작들을 소개하는 ‘한국영화클래식’의 첫 상영작으로 김기영 감독의 걸작 스릴러 ‘하녀’(1960·사진)를 선정했다.

‘하녀’는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제 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이 “이 상을 제 첫영화의 감독인 김기영 감독에게 바치고 싶다. 천재적인 감독이었던 그와 처음 영화를 찍었는데,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한 수상소감 때문에 최근 다시 화제가 됐다.

26일 오후 7시30분에 상영 예정인 ‘하녀’는 윤여정의 데뷔작 ‘하녀’(1971)의 원작으로 ‘하녀 82’(1982)와 함께 김기영의 ‘하녀 3부작’으로 불린다. 한 중산층 가정에 들어온 하녀를 통해 가족의 붕괴와 그로인한 공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계단을 중심으로 1, 2층이 나뉜 이중집의 그로테스크한 미장센과 불협화음이 관객들에게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를 선사한다.



앞으로 광주독립영화관은 두달에 한번 한국고전영화의 걸작들을 엄선해 상영할 예정이며, 다음 상영작은 이념 전쟁이 남긴 상처를 다룬 임권택 감독의 추적 드라마 ‘썩코’(1980)다. 관람료는 5000원이며, 45석 한정 입장이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